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전자정보공학과	이름	한XX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 컬리지	파견기간	2020.02.22 ~ 2020.07.10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위치는 다운타운과 캐나다 라인으로 15분에서 20분정도 걸립니다. 학교가 크진 않지만 깨끗하고 좋습니다. 특히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좋습니다! 학교 안에 팀홀튼, 스타벅스, 서브웨이가 있고 그 이외에도 카페테리아에 인도음식, 바베큐 음식점 등이 있었습니다.
2020-1학기 수업	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 <LEAP 3 > 학교에서 2주 수업 이후 COVID - 19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방법과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수업시간이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였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 길면 오후 3시까지 수업하였습니다. Leap 2까지는 문법을 알려주고 Leap 3부터는 Writing을 중점적으로 배웁니다. 주차 별로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주 주제가 Language이면 첫째 주에는 그 주제에 관한 Listening, Reading, Writing을 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Writing 시험이 있고 Listening과 Reading은 각각 3번정도 시험을 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숙제로 Reading과 Listening을 내주고 수요일 정도부터는 Writing 시험을 위한 Brainstorming을 숙제로 내줍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는 조별로 모여서 답을 맞춰보고 서로의 생각을 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LEAP 8 중에 LEAP 3라고 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 LEAP 3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떻게 영어로 글을 쓰는지, 글의 구조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발표는 3개를 하였고, 그 중 2개는 프로젝트로 성적에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개를 먼저 말하자면, 이것은 Coursework로 들어가는 건데, 책 한 권을 읽고 책을 3분동안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수업이었기 때문에 동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책을 3권 읽으며 그 책은 모두 랭가라 북스토어에서 사거나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사고 두 번째, 세 번째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서 친구들이랑 돌려봤습니다. 도서관에도 책이 2권, 3권밖에 없어서 바로 빌리지 않으면 사야 합니다. 한 권당 만 원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PROPRO 프로젝트로 wine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3,4개 정도의 article을 주고 내용을 요약해서 6분내외로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시 동영상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EUREKA 프로젝트로 발명품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제는 임의로 선생님께서 정해주시고 저는 시리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Article은 1개만 주고 7분정도로 발표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줌 화상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른 학생에게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발표를 보고 채점을 바로 바로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Reading과 Listening은 서술형입니다. Reading 시험시간은 1시간이며 Listening은 1번 들을 때마다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5분씩 주고 총 3번 듣습니다. 특히 Listening을 할 때 듣고 영어로 답을 작성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2020-1학기 수업	<LEAP 4> LEAP 4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Writing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두 분이셨는데 서로 채점방식이 달라서 그거에 맞춰서 글을 쓰는 게 어려웠습니다. LEAP 4는 7주동안 프로젝트 2개를 수행하고 매주 Reading, Listening, Writing 시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매주 저널을 작성해서 내야 하는데, 가볍게 영어로 글을 쓰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문법을 고쳐주거나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글에 코멘트를 달아줍니다. LEAP 3와 가장 달랐던 점은 Listening이었습니다. LEAP 4에서는 첫 번째 듣기 때 백지에 자신이 생각하는 키워드나 중요한 것들을 적고 두 번째 들을 때부터 문제를 나눠줍니다. 저는 이 방식이 더 잘 맞았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Short Story입니다. 미술작가와 작품을 하나 골라서 그 작품을 왜 좋아하는지, 어떤 부분이 인상 깊은 지 등등 5분에서

	7분정도 PPT와 함께 발표하면 됩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Famous Canadian입니다. 이름 그대로 유명한 캐네디언 중 한 사람에 대해 10분정도 발표하는 것입니다. 해당 인물에 관한 글을 4개 주고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PPT를 만들어서 발표하면 됩니다. 원래는 조별발표인데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고 개인발표로 바뀌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i>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i> 원래는 LEAP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COVID – 19 때문에 전면 취소 되었습니다ㅠㅠ 그 대신 LEAP 반 배정 시험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반 배정 시험은 Reading, Writing, Speaking이 있는데 Reading은 토익 RC와 비슷한데 총 4지문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고 많이 푸는것보다 많이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Writing은 한 가지 주제를 주고 찬성, 반대에 관한 의견을 쓰는 것 입니다. 제가 받은 질문은 핵가족이 좋은 지, 대가족이 좋은 지 쓰는 것이었습니다. Speaking은 4명씩 조를 만들어주고 질문지를 나눠줍니다. 서로 돌아가가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각 조마다 선생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채점합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i>현지 기후 및 유의점</i> 3월 중순까지는 비가 정말 계속 옵니다. 우산을 항상 들고 다녀야 하고 특히 접이식 우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밴쿠버에서는 우산 한 개에 \$16정도 합니다. 한국우산이 훨씬 질 좋고 싸입니다. 3월에는 거의 코트를 입고 다녔고 숏패딩도 가끔 입었습니다. 롱패딩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경량패딩이 있으면 정말 유용합니다. 4월 중순부터 말까지 정말 잠깐 엄청 덥다가 5월부터 다시 약간 추워집니다. 아침과 낮, 밤의 온도차가 엄청 심해서 겹옷은 거의 항상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가디건이나 자켓류, 후드집업을 많이 가져오면 좋아요! 6월 20일 이후부터는 낮에 더워서 반팔입고 셔츠류도 많이 입었어요! 6월 말부터는 거의 반팔만 입고 다녀도 괜찮은 날씨입니다.

안전	<i>현지 안전 상황</i> 안전하지만 노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해를 가하진 않지만 그래도 무섭습니다. 그리고 마리화나가 합법이기 때문에 다운타운 거리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게스타운 뒤쪽으로 차이나타운을 지나서 Hasting Street쪽에 노숙자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쪽은 엄청 위험하기 때문에 지나다닐 때 지도를 보고 피해야 합니다. 거의 갈 일이 없지만 가끔 버스타고 지나가다 볼 수 있습니다. 상가는 모두 닫혀있고 거리에 노숙자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Oppenheimer Park 주변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공원에서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노숙자들이 텐트를 치고 지내는 공원입니다. 5월 중순부터 해가 8시 50분 정도로 늦게 집니다. 6월이 시작되고 7월쯤 되면 9시 45분쯤 해가 집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그나마 저녁에 밖에 있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숙소	<i>학교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o) 기타()</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 저는 5월까지 홈스테이에서 살다가 6월부터 7월 10일까지 다운타운에서 살았습니다. 2달은 무조건 홈스테이에서 사는 것이 규칙이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홈스테이에서 살 지 외부 숙소에서 살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5월부터 다운타운쪽에서 살 계획이었으나 Covid-19 때문에 학교측과 상의하여 6월부터 살았습니다. 홈스테이는 정말 케바케입니다. 제가 지냈던 홈스테이 가족들은 친절하였습니다. 룸메이트는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일본인이었고, 한 명은 우크라이나인이었습니다. 방은 7개였고 화장실은 5개 정도로 집이 굉장히 큰 편이었고, 화장실은 혼자 사용하였습니다. 홈스테이에 배정받기 전에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반지하는 싫다고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저는 강아지를 매우 좋아해서 강아지가 있는 곳으로 배정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요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해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리를 할 수 없어서 입맛에 맞지 않는 요리가 나왔을 때 너무 아쉬웠습니다. 홈스테이 장점은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케바케입니다. 저는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룸메이트가 있어서 룸메이트와 매일 영어로 대화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영어 실력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도 가족들과 대화하거나 쇼핑을 가는 것, 같이 시간을 보내는

친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홈스테이에서 나온 첫 번째 이유는 친구들과 같이 놀면 밥을 밖에서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러면 홈스테이에서 밥을 많이 먹지 않게 됩니다. 홈스테이 비용은 식비를 포함하여 \$870인데 밖에서 밥을 많이 사 먹게 되면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홈스테이 식사 관련 내용은 아래에 적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운타운, 학교와 집이 너무 멀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버스를 한 번 갈아타야 했고, 아니면 버스를 타고 Canada Line을 타야 했습니다. 둘 다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다운타운까지는 버스를 타고 한 번에 가거나 버스를 타고 Canada Line을 타야 했습니다. 이 역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저의 홈스테이 가족은 학생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뭔가 벽이 많이 느껴졌고, 친절하긴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았습니다. 홈스테이 비용이 한 달에 \$870입니다. 가족처럼 대해주지 않았을 뿐더러, \$870이나 냈는데 그 정도의 음식을 주지도 않았고 편의성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디 갈 때 꼭 말씀을 드려야 하고 밥을 집에서 먹을 지 밖에서 먹고 올지, 몇 시쯤 집에 들어 갈 것인지에 관한 것들을 말해야 했습니다. 이건 홈스테이에 살면 당연히 말씀 드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조금 불편해서 외부숙소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환학생을 갔을 때는 Covid-19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홈스테이 가족이 Covid-19에 매우 예민해서 밖에 외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5월 말부터 규제가 완화되면서 마스크를 쓰고 세정제를 챙겨서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홈스테이에 계속 살면 출국할 때까지 방에만 있다가 한국에 돌아갈 것 같아서 홈스테이에서 나왔습니다.

외부 숙소 역시 비싸지만 교환학생 자체가 돈이 많이 드는 만큼 10만원에서 20만원 더 내고 많은 경험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인을 통해 방을 계약했지만, 보통 우뻤유라는 다음카페에서 찾아 계약합니다. 계약할 때에는 계약서를 꼭 써야하고, 보증금이나 계약 내용을 정확히 봐야합니다.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보증금을 안 준다거나, 다음에 살 사람을 직접 구해야 한다는 등 사기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비용 관련 한 것들은 아래 소요경비에 자세히 작성하겠습니다. Covid-19 때문에 해외 입국이 막혀서 방들이 평소 가격보다 매우 저렴했습니다. 룸쉐어는 방이 마스터룸, 세컨룸, 솔라, 거실, 덴으로 나뉩니다. 네이버에 쳐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름이 되기 직전이어서 솔라에서 살았는데 온도도 딱 좋았고 방 뷰도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는 너무 춥고 너무 더워서 절대 못 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룸쉐어를 하신다면 솔라룸보다는 세컨룸에서 살거나 친구들과 같이 마스터룸에서 사는 걸 추천 드립니다. 룸쉐어에서는 직접 요리를 해먹거나 밖에서 사먹어야 하는데, 저는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서, 요리는 한 7번정도 해 먹은 것 같습니다. 룸쉐어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위치가 좋다는 것입니다. 룸쉐어집은 랍슨스트리트와 엄청 가깝고 콜하버랑도 가까워서 친구들과 놀고 헤어질 때도 집에 금방 도착하고 혼자 조깅할 때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o) 외부식당 (o) 직접 요리 (o)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홈스테이 가정은 필리핀계 캐네디언이었습니다. 홈스테이에 살 때에는 요리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음식도 가끔 별로였던 것만 빼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식을 많이 해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떡볶이나 우동, 잡채 등을 만들어주셨는데 맛있었습니다! 점심은 대부분 샌드위치거나 레프트오버, 전날에 먹은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샌드위치는 식빵 사이에 햄과 마요네즈를 뿌린 게 다였습니다. 샌드위치만 줄 때도 있었고 가끔 샐러드나 오이, 파프리카를 같이 준 적도 많습니다. 저는 온라인 수업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샌드위치를 거의 안 먹고 과일이나 샐러드, 레프트오버를 많이 먹었지만 만약 학교를 다녔다면 별로였을 것 같습니다. 저녁은 돼지고기나 소고기, 닭요리가 많았고 연어요리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룸메이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음식은 자율적으로 떠서 먹는 게 아니라 배분 해 준 음식을 먹는 거라 먹고 싶지 않은 음식도 먹어야 하는 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음식을 버리면 뭐라고 하셔서 다 먹느라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간식도 매번 주시고 항상 냉장고에 과일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룸쉐어로 옮기고 나서는 스파게티나 떡볶이를 많이 해먹었고, 약속 있을 때는 친구랑 먹는 한끼만 먹었습니다. 밖에서 음식을 사먹으면 TAX와 TIP 때문에 가격이 메뉴판과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환율은 880원에서 900원이지만 그냥 1000원으로 계산하면 딱 TAX와 TIP이 포함된 가격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음식과 관련 된 TAX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류 관련 TAX는 12%입니다. TIP은 15% 보통이고 15%보다 낮게 주면 서비스가 별로였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좀 있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18%부터 시작합니다. To Go를 하면 팁을 안 줘도 됩니다. 정말 꼭 가야하는 식당을 꼽자면 Robson Street에 있는 Dinesty입니다. 중국요리집인데 진짜 같이 가는 친구들마다 모두 맛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킨은 Robson Street에 있는 올레치킨이 가장 한국치킨 집 느낌이고 맛있습니다. 스시는 사무라이 스시가 유명한데 생각보다 별로고 요즘에는 펍은 다양하게 있는데 게스타운 쪽에 있는 The Cambie를 추천합니다. 밖에 테라스에서 날 좋은 날 맥주 마시면 정말 좋습니다ㅎㅎㅎ 그 이외에도 Granville Island 쪽에 있는 Granville Brewery도 진짜 예쁘고 수제 맥주를 마실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노스밴쿠버쪽에도 펍이 이쁜 곳이 많으니 워터프론트역에서 Seabus 타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킷실라노 비치 쪽에 Lucky Taco라고 있는데 실내가 예뻐요. 잉글리시 베이 쪽에 있는 펍들도 이쁘고 선셋 보면서 맥주 마시면 끝납니다. 식당 가격은 구글 지도에 나와있는 것을 참고하였습니다. \$이면 싼 가격, \$\$이면 보통 \$\$\$은 비싼 레스토랑 입니다.
교통	<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 통학 : <홈스테이 - 학교> 버스 한 번 갈아타기 or 버스, Canada Line 타기 : 소요시간 약 50분 <홈스테이 - 다운타운 > 버스 타기 or 버스타고 Canada Line 타기 : 소요시간 약 50분 ~ 1시간 매달 Monthly Pass 이용 : 한달에 \$98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CAD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대한항공 Vancouver In – New York out 957,700원 델타항공 Vancouver – New York 340.76 CAD 대한항공 출국날짜 변경 수수료 및 차액 : 99,100원	Covid – 19 때문에 뉴욕여행이 취소돼서 델타항공 환불 받고 대한항공 출국날짜 및 출국공항 바꿈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없음
보험료	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메리츠 해외유학생 보험 : 267,890원	제가 삼성화재, 메리츠, KB 등등 다 알아봤는데 메리츠 해외유학생 보험이 보장금액도 가장 높은 반면 보험납입금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질병사망 및 질병 후유장애 2천만원, 해외발생의료 실비(상해 질병) 각각 1억원, 체류중 중대사고 송환비용 1억원입니다.
숙소	Homestay Placement fee : \$400 Homestay Monthly fee : \$870 * 2 = \$1740 마지막 달 홈스테이 fee (06.01 ~ 06.06) : \$29 * 6 = \$174 룸쉐어 (06.07 ~ 07.09) : \$755	밴쿠버에 가기전에 한국에서 미리 두 달치 Homestay fee와 homestay 배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공항픽업 fee, 은행송금 수수료를 미리 내고 가야 합니다. 만약 공항픽업을 이용할 시 \$2260이고, 이용하지 않으면 \$2160입니다.
식비	약 1,172,000 원	
교통비	Airport pick-up : \$100 312,418원	Compass card Monthly pass : \$98*2
책값	\$11.02	LEAP 3 : King Lear
기타1	Bank fee for wire transfer : \$20	

기타2	<관광> 딥코브 카약 : \$33.54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 : \$44 스탠리파크 자전거 : \$11 *2	
기타3	쇼핑 및 기념품 : \$1641	
기타4	한국으로 겨울 옷 배송 : \$117.42 기타 : \$354	
합계	7,600,102원 (환율 897원 적용)	가계부 앱에 기록된 밴쿠버에서 쓴 총 금액 \$4736(CAD) 출국 전 랑가라에 납입한 fee : \$2260 항공료 : 1,056,800원 보험료 : 267,89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영어공부를 많이 하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단어를 많이 외우고 가면 좋습니다.
가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나 수업 중 토의하는 시간에 단어를 잘 모르면 의견을
전달하는 게 어렵습니다. 꼭 단어를 많이 외우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홈스테이 가정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좋을 수는 있지만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의 한국 학생들만 선물을 준다고 하더라고요ㅎㅎ 저도 준비하긴
했지만 제 선물을 다른 지인에게 다시 선물하는걸 봤습니다... 굳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피크닉매트를 한국에서 꼭 사가세요! 2학기에 가는 학생들은 피크닉을 얼마나 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1학기에 가는 학생들은 피크닉 진짜 맨날 하니깐 꼭
가져가세요ㅠㅠ 저는 London drug에서 샀는데 일단 잘 팔지도 않고 엄청 비싸고

그리고 큰 것도 안팔아요 πππ 1인용 매트를 많이 팔아서 큰 피크닉매트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피크닉매트는 돛자리 아니고 약간 타월이나 면으로 된 피크닉을 위한 매트입니다. 구글에 Picnic mat라고 치면 많이 나오니깐 참고해서 사가면 될 것 같아요! 돛자리 피는 사람 없어여... 돛자리 아닙니다당...ㅎㅎ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입을 옷만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옷을 엄청 좋아하는데 McArthurGlen Outlet 가서 거의 100만원어치 옷 샀어요... 그래서 결국 겨울 옷은 택배로 한국에 부쳤습니다.. 근데 바지는 길어도 너무 길고 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바지는 꼭 한국에서 가져가세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1학기에 가는 분들은 얇은 겉옷을 많이 가져가면 좋습니다.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신다면 일회용 필름카메라를 사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제가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해서 원래는 필름카메라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인화를 바로 할 수가 없어서 일회용 필름카메라를 사갔습니다. 필름을 빼고 오랫동안 인화를 바로 하지 않으면 색이 변질될 수 있고 필름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회용 필름카메라를 추천합니다. 디지털 카메라와는 또 다른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당!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먼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다 취소되고 수업도 온라인으로 바뀌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만약 교환학생을 가지 않았다면 온라인으로 졸업논문을 쓰고 취업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을 하게 될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션과 세션 사이에 2주정도 break가 있는데 이 때 집 안에만 있어야 했어서 약간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도 보고 룸메이트랑 놀면서 우울감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습니다ππ

외국인 친구들이 저한테 마지막에 같이 놀면서 영어가 많이 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비상사태로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밖으로 외출이 어려웠습니다. 집 앞 공원을 조깅하고, 편의점에 다녀오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룸메이트가 있어서 그 시간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어쩌면 Stay Home을 하지 않았다면 순천향대 친구들과 더 많이 놀러 다녔을 것 같습니다. Stay Home을 하면서 정말 한국어는 아예 쓸 일이 없었고 특히 룸메이트가 레드벨벳, 블랙핑크 등 K-POP을 매우 사랑해서 할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마지막에는 영어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교환학생을 가시게 된다면 한국인 친구들보다 외국인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원래는 모든 세션이 끝나면 밴쿠버에서 뉴욕으로 여행을 가서 뉴욕에서 아웃을 하려고 했는데 모든 여행이 취소 되면서 뉴욕항공편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델타항공을 예약했는데 트위터나 메일로 환불을 요청하면 마일리지로 줍니다.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해야 했는데 사실 너무 떨렸습니다. 전화영어는 알아듣기도 더 어렵고 순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문법도 틀렸을 것이고 네이티브처럼 유창하게 말하지는 못했겠지만 환불요청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환불이 결국 마일리지로 들어와서 다시 한 번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Full - Refund로 달라고 하여 결국은 전액환불을 받았습니다. 한 번 전화하고 성공한 경험이 있으니 약간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뭔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심칩을 친척언니에게 받았습니다. 친척언니가 작년에 갑자기 밴쿠버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야 할 사정이 생겨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아직 핸드폰 약정이 끝나지 않아 저에게 유심칩을 줬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 기간동안 잘 쓰다가 마지막날에 해지를 했습니다. 이 때도 전화로 해지를 해야했는데 델타항공보다 친절하였습니다. 아무리 자신감이 없고 영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해도 일단 부딪혀 보는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해해주고 가끔 불친절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친절합니다ㅎㅎㅎ 저는 영어를 배우러 간만큼 돈이 아깝지 않게 많이 돌아다니고 영어도 많이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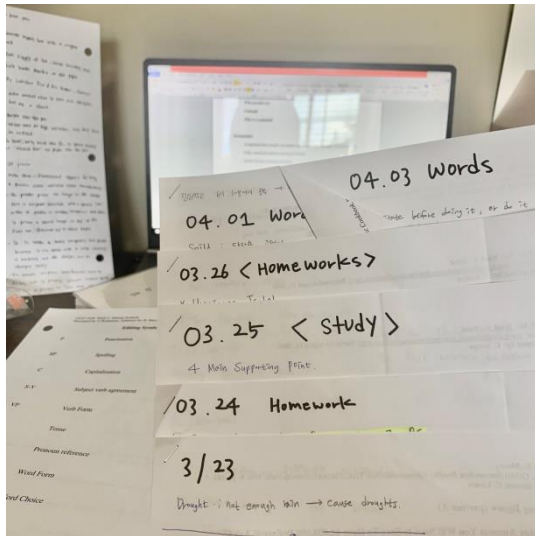
5월 중순부터 규제완화가 언급되었고 6월부터는 규제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7월 10일까지 정말 열심히 놀았습니다. 다른 주로 이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밴쿠버 안에서 최대한 즐기자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가장 추천 드리는 곳은 Kitsilano Beach입니다. 다들 잉글리시 베이랑 선셋 비치만 가는데 제일 핫하고 제일 이쁜 곳은 Kitsilano Beach입니다. 사실 갔다가 코로나가 끝났나 생각 될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Social Distancing을 잘 유지하며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교환학생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버킷리스트 같은 것이었는데 아직도 다녀 왔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그만큼 좋았던 경험이고 잊지 못 할 추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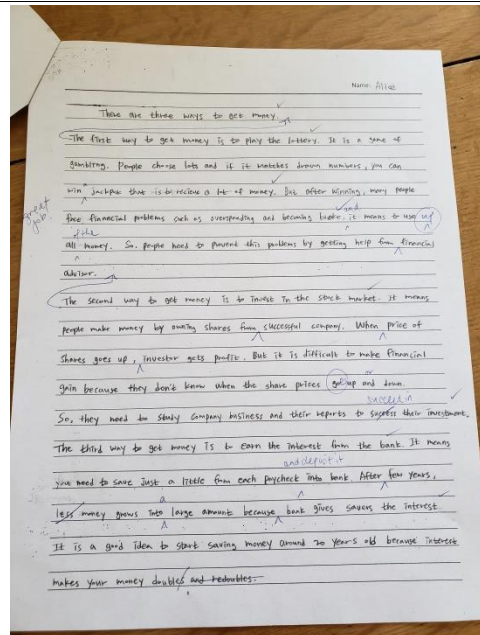
다음 학기는 휴학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방학기간 동안 오픽을 공부하여 최대한 빨리 IH or AL을 따고 그 이후에 토익을 공부 할 예정입니다. 휴학기간 동안은 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할 것 입니다. 복학을 하고 나서는 영어를 잊지 않기 위해 글로벌 빌리지에 지원 할 것입니다. 2학년 1학기때부터 계속 글로벌 빌리지에 살았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외국계기업에 입사하는 것 입니다. 앞으로 이번 교환학생 경험을 발판삼아 저의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교환학생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다면 인스타 디엠이나 메일로 연락주세요! 인스타 아이디는 h.eun_hee이고 메일은 ehh740366@gmail.com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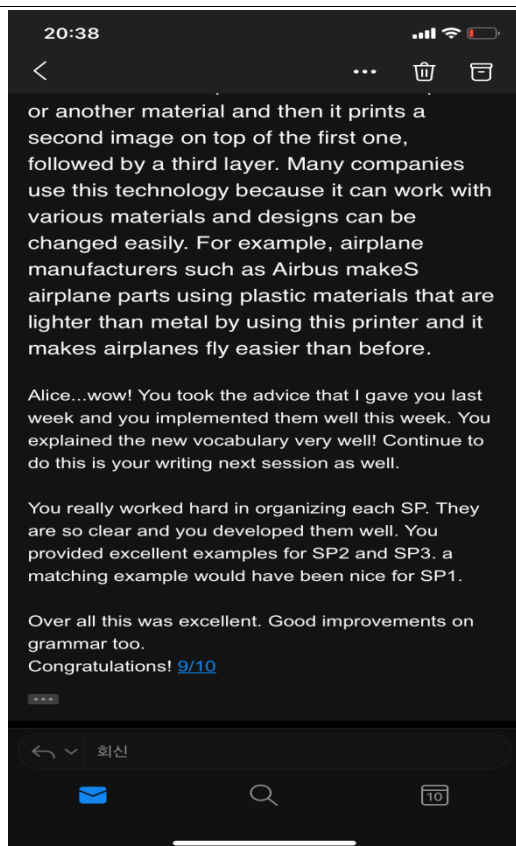
	
홈스테이 강아지들 흰색 개는 Sophie이고, 검정색 개는 zzoro	방 문을 열면 항상 나를 이렇게 쳐다보았다.
	
벚꽃길이 엄청 많다. 진짜 이뻤다.	친구들이랑 퀸 엘리자베스 파크 갔을 때



온라인 수업이지만 단어정리도 하고
숙제도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다.



Writing 시험을 보면 이렇게 틀린
부분을 적어주신다.



처음으로 Writing 시험에서 9점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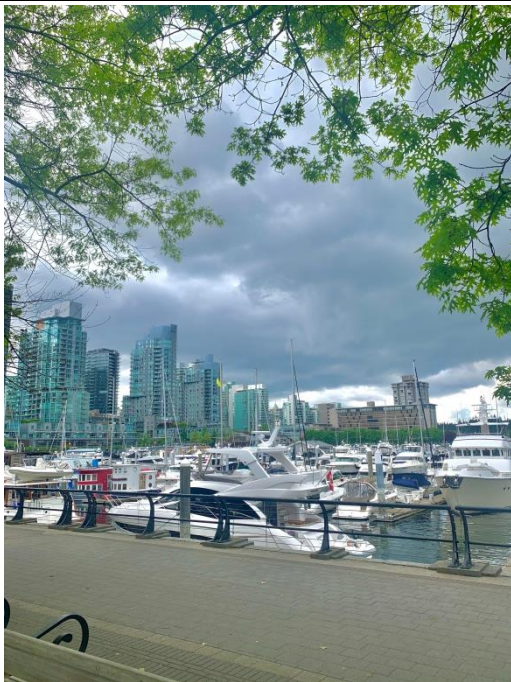
홈스테이 점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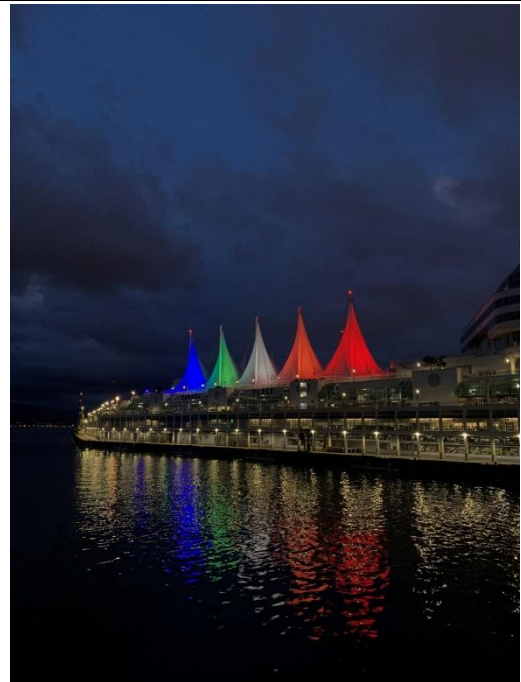
Covid - 19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 할 때 앉을 수 없는 자리가 있다. Social Distancing을 위한 것이다.



룸 셰어에서 살 때 내 방의 뷰이다. 바로 앞이 콜하버라 정말 예뻐다.



집 바로 앞의 콜하버 공원이다. 옆으로 5분정도 가면 스탠리 파크가 있었다. 매일 여기에서 조깅을 했다.



집에서 한 15분정도 걸다보면 캐나다 플레이스가 나온다. 여기도 조깅코스 중 하나이다.

 The image shows a Delta Airlines email titled "REFUND REQUEST CONFIRMATION" addressed to Eunhee Han. It confirms that a refund request has been submitted for review. The email includes the passenger's name, address, and a refund request number (AXS36551826) issued on 04/17/20.	 A person is silhouetted against a vibrant sunset sky over a body of water, holding up a phone to take a photo. Other people are visible in the background, also enjoying the view.
델타항공 티켓 환불요청	잉글리시 베이에서 선셋과 함께 찍은 사진
 A woman in a blue jacket and skirt stands in front of the grand, historic Victoria British Columbia Museum, which features a prominent green dome and classical architecture.	 Three people are standing on a grassy lawn at sunset. A man in a black tank top and blue shorts is on the left, a woman in a white jacket and blue pants is in the center, and another man in a black tank top and black shorts is on the right. They are all looking towards the camera.
빅토리아 주의사당	킷실라노 비치



게스타운 스팀클락 앞에서



일본인 친구들이랑 같이 먹었던
야끼니꾸